

새로운 조경수 65

찔레꽃

1. 종류와 생육특성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장미속(Rosa)은 지구북반구(地球北半球)의 온대 및 아한대(亞寒帶)에 약 200여종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관상용(觀賞用)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종이다. 따라서 재배역사가 오래된 만큼 원예품종(園藝品種)이 많이 개발되어 보급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원예품종이 도입되어 조경수로 식재되고 있다. 우선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자생종인 찔레꽃나무에 대해서 기술코저 하며, 찔레꽃나무는 우리나라 자생종(自生種)의 하나이지만 일본에도 분포하고 있다. 내한력(耐寒力), 내음력(耐陰力), 내건력(耐乾力), 내습력(耐濕力), 내염력(耐鹽力), 내공해력(耐公害力) 등이 강한 수종으로 어떠한 입지에서도 잘 자라며 전국 산야의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다.

2.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찔레꽃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산야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표 1〉 찔레꽃나무의 종류

국 명	학 명	일 본 명	영 명
찔레꽃나무	<i>Rosa multiflora</i> THUNB	노이바라	Japanese Rose
털찔레꽃나무	<i>Rosa multiflora</i> THUNB var. <i>adenochaeta</i> OAWL	하노이바라	
좁찔레꽃나무	<i>Rosa multiflora</i> THUNB var. <i>quelpaertensis</i> NAKAL	코바노이바라	
제주찔레꽃나무	<i>Rosa luciae</i> FR et ROCKHEB	아즈마이바라	
국경찔레꽃나무	<i>Rosa jaluana</i> KOM	치요우센야마이바라	

〈표 2〉 수종별 생육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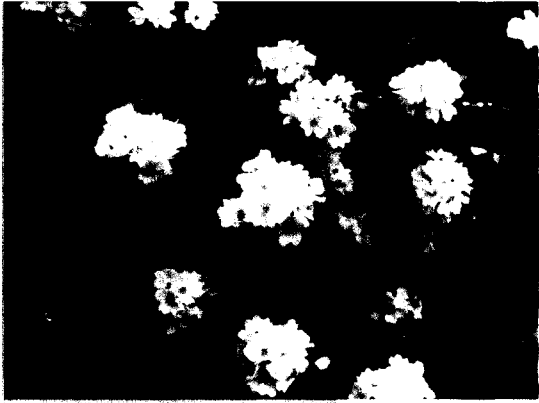
수종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쫄레꽃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엽활엽관목으로 수고 2m정도 자람 가지끝이 밑으로 처져 덩굴같은 모양을 함 잎은 호생(互生)하며 우상복엽(羽狀複葉)임 소엽(小葉)은 5~9개로 타원형 또는 도란형임 잎의길이 2~3cm로 양끝이 좁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음 탁엽(托葉)은 빛살같은 톱니가 있고, 하반부는 잎자루와 합쳐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5월에 백색으로 피م 화서(花序)는 원추화서(圓錐花序)로 새가지 끝에 달림 꽃의 지름은 2cm정도이고 꽃잎은 5장이고 도란형임 꽃잎의 끝부분이 약간 오목하고 향기가 있음 꽃받침은 피침형(披針形)으로 뒤로 젖혀지며 길고 곧은 털이 있음 열매는 9월에 주홍색으로 익음 열매는 둥글고 지름 8mm정도임 씨는 길이 3mm 정도로 털이 있음 	전국산야 표고 50~1,950m	산록, 계곡의 습윤지
털쫄레꽃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쫄레나무와 다른점은 잎에 선모(腺毛)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쫄레나무와 다른 점은 화서에 선모가 많음 	전국산야 표고 50~1,950m	산록, 계곡의 습윤지
쫄쫄레꽃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엽의 길이가 1~2cm로 쫄레꽃나무보다 작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이 쫄레꽃나무 꽃 보다 작음 	전국산야 표고 50~1,950m	산록, 계곡의 습윤지
제주쫄레 꽃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탁엽(托葉)에 톱니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쫄레꽃나무와 다른 점은 화주(花柱)에 털이 있음 	전국산야 표고 50~1,950m	산록, 계곡의 습윤지
국경쫄레 꽃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특징이 제주쫄레꽃나무와 비슷하나 탁엽에 톱니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쫄레꽃나무와 다른 점은 꽃이 작고 붉은 색임 	전국산야 표고 50~1,950m	산록, 계곡의 습윤지

수종으로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은은한 꽃향기와 새하얗게 핀 꽃은 우리의 정서(情緒)에 어울리는 순박(純朴)한 꽃으로 꽃을 한송이 한송이 따로따로 놓고 볼 때 원예품종의 꽃 같이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넓은 면적에 집단으로 새하얗게 피어 있는 광경은 마치 잔잔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밀려오는 것 같은 신선(新鮮)함을 느끼게 하고, 가을에 붉게 익은 열매가 나무 전체를 덮고 있는 광경은 꽃 못지 않은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해 준다. 도로 및 가로변 하천변, 아파트 및 학교주변, 공원 및 도시녹지 공간에 생울타리 및 지피조성(地被造成)용으로 많이 식재하고 있는 개나리, 철쭉, 쥐똥나무, 사철나무 대신에 쫄레꽃나무를 부분적

으로 식재하면 계절에 따라 변화 있는 환경을 만끽(滿喫)할 수 있을 것이다.



▲ 쫄레꽃나무 개화 전경



▲ 찔레꽃나무 꽃과 화서

3. 번식 및 양묘방법

찔레꽃나무의 번식은 파종, 삽목, 분주 등의 방법으로 번식이 가능하지만 주로 파종에 의한 실생묘(實生苗) 양정으로 번식하며, 종자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묘코저 한다면 여름에 녹지삽목(綠枝挿木)으로 번식한다. 실생묘양정은 가을(10月頃)에 열매를 채취하여 과육(果肉)을 제거한 후 마른 모래와 섞어서 보관한다. 파종 1개월전(3월上旬)에 다시 노천 매장(露天埋藏)을 해 두었다 4월 상순에 끄집어 내서 모래를 제거한 다음 m^2 당 0.03l 정도로 종자를 뿌리고 그 위에 0.7cm정도

두께로 복토를 한다. 발아가 된 후에 2~3회의 솟음으로 m^2 당 64본정도 생립시킨 후, 시비와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녹지삽목은 6월중순에 잎이 달린 새가지를 채취하여 길이 10cm정도로 절단한 후, 삽수(挿穗)의 상단부 1/3정도는 잎을 남기고 그 아래 부분의 잎은 모두 제거하고, 삽수의 밑부분을 잘 드는 칼로 비스듬히 잘라내고 생장호르몬(IBA 등)을 처리한 다음, 이식삽으로 골을 파고 삽수의 2/3정도가 묻히게 곳곳이 세워서 묻고, 그 위에 비음도(庇蔭度) 70%정도되는 발을 쳐주고 삽목상(挿木床)에 건조하지 않도록 관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발근이 되고 새순이 자라나면 발을 제거하고 비배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조경수**



찔레꽃나무 결실광경 ▶